호시노재심 뉴스 184 후 2012 년 9 월 15 일발행

현장목격자조서를 공개해라

9·28 도쿄(東京) 고등 법원 포위 데모에

8·6 히로시마 대행동 노다(野田) 수상기념 식전출석 탄핵 !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또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２－８－１６이시다(石田)빌딩４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이의심의에서 호시노씨의 재심 개시를

모든 증거개시의 대운동에 찬동하는 사람을 모으자

모든 증거개시 운동이 드디어 전국에서 개시되었습니다.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에 대한 "살인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날조 입니다. 검찰관이 몰래 숨기고 있는 모든 증거를 개시 시키면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의 무죄는 반드시 명백해집니다. 이 마음도 굳고 같은 재심운동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문화인.예술가.종교자.원전반대운동의 선두에서 싸우는 사람에다 피폭노동을 거부하고 싸우는 노동자 외주화.비정규직화와 싸우는 노동자에게 찬동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시노씨의 해방을 바라는 싸움은 "모든 증거를 개시하라"라는 목소리가 모든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목소리가 되었을때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상관저 앞에 매주 금요일에 만여명의 사람이 모여 "인류와 핵은 맞지 않는다"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나라의 정치가 거짓과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져 사람들은 분노를 폭팔시키며 제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하나가 되어 호시노씨의 모든 증거 개시를 쟁취합시다. 9 월 28 일 이의심의에 보충서를 제출하는 변호단과 하나가 되어 토쿄고등재판소 포위 데모에 집결해 함께 싸우자.

스즈키 타츠오(鈴木 達夫)변호단장에게 듣는다

모든 증거개시에서 이의심의에 승리하자

힘찬 운동과 날카로운 논리로 사법을 격파한다

모든 증거개시운동으로 토쿄고등재판소 제 11 형사부의 제 2 차 재심기각 결정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호단은 9 월 28 일에 이의신청의 "보충서"를 제출합니다.

스즈키 타츠오(鈴木 達夫)변호단장에게 이의심의의 승리의 방향성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싸움과 하나로

3.11 이후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수만 십수만명의 궐기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30 기각 결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말해 주십시요.

스즈키(鈴木)

오늘(8 월 28 일) 국철 동력차 노동조합 총연합(치바(千葉)미토(水戸)타카사키(高崎))의 조합원 60 명이 점검 수리.구내업무 완전 외주화와 그에 따른 강제적인 관계회사 근무의 금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철도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또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노리는 공격에 대해 드디어 대반격이 개시되었습니다. 호시노투쟁도 이것과 함께 싸워 승리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위기와 흉폭성

최근 니시무라 쇼우지(西村 正治)변호사가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에게 보낸 면회.편지국가배상의 소송자료를 토쿠시마형무소가 "일부말소를 인정하지 않는한 줄 수 없다"라는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그전에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씨가 보낸 토쿠시마변호사회의 "권고서"에도 같은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전대미문의 이상한 상황입니다. 2.5 토쿠시마형무소 포위데모가 준 타격의 크기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38 년간 정치범으로 날조되어 투옥하고 있는것에 대해 600 명의 노동자 인민의 데모를 받아 국가권력의 실체적 중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 대공황과 "3.11" 수상관저앞이나 국회앞 7.16 의 17 만명 데모에 나타난 일본 인민의 "살아가기 위한" 뿌리적인 궐기가 있습니다.

날조 "홍술조서"에 매달리는 기각결정

재심청구 기각결정의 구조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스즈키(鈴木)

기각 결정의 특징은 증거구조의 중심인 kr 홍술이 이미 도움이 안되는데도 그 유지를 위해서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시노씨를 유죄로 몰고간 증거는 데모에 참가한 학생들의 홍술뿐입니다. 확정판결은 호시노씨가 기동대원을 구타했다고 kr 홍술로 확인해 더욱해서 화염병을 던지도록 지시했다고 Ao Ar 홍술에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홍술이 권력에 의해 날조된 것임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재심재판의 핵심입니다. 기각결정은 "kr 홍술은 청구인의 복장의 색갈이 다갈색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릇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호시노씨의 상의의 색갈에 관한 홍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곳에 까지 몰렸는데도 "목소리로 알았다"라는둥 kr 홍술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소리에 의한 식별에서 화염병 투척의 지시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은 kr 홍술은 신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모순입니다. 2010 년 개시를 쟁취한 "이치로마루(一郎丸)사진"은 호시노씨가 구타 따위 하지 않은것을 가르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에 대해 "(철파이프로 구타해도) 반드시 변형 되거나 손상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실로 자신이 없는 말을 하면서 kr 홍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재판소

이츠쿠시마(厳島)교수등의 감정서는 투쟁후 석달이나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너무나도 상세한 kr 홍술이 검찰관에 의한 날조인 것을 실험과 최신의 심리적 지견을 바탕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기각결정은 심리학 연구의 정론까지도 부정하고 무시한것도 모자라 "수사관에 의한 유도도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한 효과 있는 기억환기의 방법이 된다"고 라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유도가 기억을 해치는 것은 심리학에 있어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유도를 일절 하지 않은
이츠쿠시마(厳島)교수의 실험과 유도로 이루어진 kr 홍술은 "기억환기의 과정에 그에 따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심리학의 지견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호시노씨가 화염병을 던지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Ao Ar 의홍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에 의한
인물의 식별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들인 척하며
"입금 시키는 사기"를 생각해 보십시요. 이점에서는 후생노동성의『국민생활백서 조차』
"우리들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은 예로부터
인지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의 분야에서 연구가 차곡 차곡 이루어져 왔다" "심리학 뇌과학에서 본
전화와 시간적 절박감이라는 함정" "불확실한 전화 상대의 목소리를 주변의 상황에 사로잡혀 상대를
잘못 판단해버리는 점이 나야나야 사기의 하나의 함정"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의심의 승리의 세가지 기둥

이의심의에 승리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말해주세요.

스즈키(鈴木)

크게 세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치로마루(一郎丸)사진"에 관한 잘못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각결정은
"불선명 하지만 손상이 있는듯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더 과학적인 감정으로 철저하게 분쇄합니다.

둘째는 이츠쿠시마(厳島)감정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그 불합리성 비과학성을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각결정은 심리학의 최신 지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등의 판결에서도
"심리학의 최근의 진보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전면적인 증거의 개시입니다. 목격자의 홍술조서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데 검찰관은 그것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무죄의 증거는 검찰관이 숨기고 있다!

모든 증거개시의 중요성과 그 싸우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세요.

스즈키(鈴木)

여기에서도 증요한 문제가 세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검찰관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서 "공익"이라는 이름하에 수집한 것입니다.

둘째는 형사소송의 실체로 보아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검찰관과 피고인.변호인 사이에는
결정적인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된 인민이 자기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개시시켜 그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실제의 재심재판에 있어서 증거 개시가 재심개시의 길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빈다씨의 재심 개시때 후카와(布川)사건에서 재심.무죄를 쟁취한 사쿠라이(桜井)씨가
"신증거로 재심이 실현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15 년도 전에 검찰관이 가지고 있던 증거를

개시 시킨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만 정말 맞는말 입니다. 반드시 모든 증거를 개시 시킵시다.

호시노씨 해방을 위해 전력으로 싸웁시다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를 들려 주십시요.

스즈키(鈴木)

힘찬 운동과 날카로운 논리 이 두가지가 열쇠입니다. 오늘날 100 만명 규모의 노동자 인민이 궐기하는 정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궐기하는 일본과 전세계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들의 싸움을 이해해줍니다. 밀실에서 만들어진 홍술에 매달리는 기각결정에 정당성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 변호단은 더욱 더욱 논리를 연마해 어떻게 해서라도 기각결정을 타파합니다. 싸움은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가권력과 정면으로 격돌합니다. 호시노씨의 해방을 위해서 전력으로 싸웁시다.

토쿠시마 면회일기

"세상을 바꾸는 목표를 같이 실현해 가고 싶다"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

8 월 21 일 비도 가끔씩 내리지만 전혀 온도는 내려가지 않는다. "백일홍이 예쁘네"라고 말했더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진달래 백일홍 금목서 그정도 일까"라는 후미아키. 건강상태도 좋은것같다. "혈압도 아래가 79 위에가 129. 심장의 아픔도 없다. 부스럼도 약을 바르고 있어서 나앗서" 후미아키의 회화전이 지금 홋카이도(北海道)고 다음이 이바라키(茨城)하고 사이타마(埼玉)현 코시가야(越谷)에서 열린다고 말했더니 "그거 기쁘네.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추석휴일은 10 일부터 15 일까지 있어서 "더웠지만 학습이 진전되어 다행이야"라고 말했다. "『당학교』(党学校)의 나카야마 료스케(中山 良介). 50 년사 라는것으로 70 년 투쟁과

현재에 대해 쓰고 있다. 지금까지 뒤죽박죽으로 인식 했던것이 연결됐다.
그중에서 아키코와 내가 서로 만들어 왔던것을 다시금 파악할 수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어서야말로

"아키코가 나와 같이 살아가려고 해준 것의 연유라는 것인데. 누군가에게 물리고 있는 공격에 자신도 그곳에 몸을 두고 싸운다. 진정한 연대를 키운다. 아키코의 선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곤란한 곳에 굳이 몸을두고 싸운다 그러한 것이었다. 그중에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유대 애정을 싫증내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키워왔다. 아키코가 그러한 선택을 해준 것 중에 아키코가 원래 가지고 있는 멋진면이 있다. 그래서 아키코의 컨디션이 안좋을때도 아키코에 대한 나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다.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운동적으로도 당적으로도 몰두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만들어 낸것과 맞물리게 되었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이틀째의 면회 니시무라(西村)변호사로 부터 차입된 토쿠시마(徳島)변호사회로 부터의 토쿠시마(徳島)형무소에 대한 권고서와 의견서는 일부말소를 인정하면 전해주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장에게 직접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옥중은 추석휴일중에도 비가와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찌는듯한 더위에 힘들었던것같다.
삼일째. 8.6 히로시마의 보고를 했다. 핵 반대.원전 반대 투쟁의 핵심이 제의되어 히로시마와 후쿠시마가 하나가된 집회였던 것을 전했다. "모두가 일어서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원전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가 있다. 비정규직의 분노가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노로 일어서고 있다. 일어난 것으로 변혁하고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목표를 같이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이번에 받아가는 그림은 오키나와(沖縄)의 아이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림이다. 2 년전의 현민대회에서 뮤지컬"키무타카(肝高)의 아마와리(阿麻和利)"에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
"조금더 시간이 있고 덥지 않으면 조금더 손볼 수 있었지만"이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아키코가 지금의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가 좋아졌다라는 것과 지금으로 연결해 70 년투쟁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일 기쁜 일이다"라고 후미아키는 말하며 면회를 마쳤다.